

‘올해의 PR인’에
금호 장성지 전무

금호아시아나 그룹 전략경영본부 장성지 전무가 올해의 PR인으로 선정됐다. 한국PR협회는 18일 올해의 PR인에 장 전무를, 한국PR 대상에 대한민국의 육군의 ‘예술과 육군이미지의 접목 전략’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 전무는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이미지를 ‘아름다운 기업’으로 재정립하고, 사회공헌과 상생 경영, 문화예술 지원 등에 앞장서는 소비자 친화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PR을 전개한 노력이 높이 평가됐다. 시상식은 오는 27일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개최되는 2008 대한민국 PR인 대회에서 진행된다. /이종대기자 jitee@kwangju.co.kr

NCKK 회장 김삼환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는 지난 17일 서울 명성교회에서 열린 제57회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김삼환(63)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통합(예장통합) 총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1년. 김 신임 회장은 1980년 명성교회를 설립해 담임목사로 활동해 왔으며 한남대 이사장, 팔레스타인가나안농군학교 이사장, 한국교회봉사단 대표, NCKK 부회장 등을 지냈다.

최란씨 서울예교 부학장

중견 탤런트 최란(48)씨가 서울 종합예술학교 부학장에 취임했다. 중앙대 연극영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최씨는 그동안 한서대 연극영화과 교수와 학과장을 역임하는 등 10년간 대학 강단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최씨는 1979년 동아방송 공채 21기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해 ‘최강철우’, ‘패도 홍길동’, ‘마이걸’, ‘슬픔이여 안녕’ 등의 작품에 출연했다.

인사
◆장성근 <지방서기관 승진>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내방
▲신승환씨(방송통신위원회 광주전파관리소장)

5·18문학상 소설부문 최우수상 안재근씨

5·18 거듭나려면 젊은이들 관심 가져야



한 젊은이의 성장과정 다룬 ‘야만적인...’ 당선

“한국 민주주의 회복을 선도한 ‘5·18 민주항쟁’은 자유와 더불어 평화의 상징이죠. 이러한 역사적 진실과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 많은 대학생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 5·18 기념재단의 5·18 문학작품 공모전에서 소설부문 최우수상을 차지한 안재근(26·명지대 법학과 4년)씨. 그는 이번 공모전에 ‘야만적인, 너무나도 야만적인’이라는 작품으로 당선된 영예를 안았다. 이 소설은 성공과 출세에만 매달리던 한 대학생이 여자 친구의 영향으로 사회운동에 접근해가는 이야기를 다룬 것이다. 안씨는 18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재정부 출범 후 광주병과 동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대학생들의 관심은 매우 미미하다”며 “5·18의 이념적 저항정신을 소설의 모토로 삼게 된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에 사는 안씨는 지난해 같은 대학에 다니는 친구가 5·18 공모전에 출품한 것을 보고 작품공모를 결심하게 됐다. 그는 “고등학교 재학시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5·18 이야기를 처음 접했다. 광주 방문이 처음일 정도로 5·18과 무관하다. 서울이 고향인 가족이나 친지들도 5·18에 대해 모르긴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그는 5·18에 대해 나름의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있었다. 안씨는 “한국 민주주의가 자리 잡게 된 것은 바로 광주 시민들의 희생정신 덕분”이라며 “5·18의 의미가 정치적 희생양이 돼선 안된다”고 피력했다. 특히 최근 잇따른 5·18 역사 왜곡과 폄해 발언에 대해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배우 문근영의 기부행위에 대한 색깔론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5·18의 진실이 왜곡되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5·18 민주항쟁 등 사회적 문제를 담은 글을 쓰는 소설가가 되고 싶다는 그는 “때가 되면 광주의 5월을 소재로 한 소설을 꼭 한 번 씀 각이다”고 말했다. /이종대기자 gilee@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

“잡초같은 근성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져라”

육군 홍보대사 최경주 계룡대서 강연

“경쟁이 치열한 PGA에서 7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잡초같은 근성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완도 출신 세계적인 프로골퍼 ‘탱크’ 최경주가 18일 충남 계룡대 육군 홍보대사로 위촉된 뒤 육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강연에서 최경주는 “나는 ‘빈잔’, ‘잡초’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빈잔은 마음을 비우고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좋고, 잡초는 비바람에도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계절이 변할

에 따라 옷을 갈아입으며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점에서 강하게 전진하는 원동력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최경주는 이어 “PGA에 진출해 1년동안 한국인은 성공하기 어렵고 자신의 힘이 딸린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문도 두드려야 열린다는 생각으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같은 심정으로 노력했다”며 “경쟁이 치열한 PGA에 진출해 7승의 거대한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잡초같은 근성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최경주는 또 “완도에서 청소년 시



기를 보내며 부모님은 내가 어둠 쪽으로 진출해 선전이 되기를 바랐지만 결국 운동선수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며 “역도, 씨름, 야구 등을 했었는데 야구는 타격을 잘했으나 수비가 약해 포기했고 역도는 용상은 할

대학생들이 전문 학술대회서 논문 3편 발표

조선대 안승현·전호준·이형진씨
한국정밀공학회 추계 학술대회



대학생들이 주로 교수들이 활동하는 전국 규모 학회 학술행사서 논문을 발표해 화제다. 18일 조선대에 따르면 이 대학 기계공학과 4학년 안승현·전호준·이형진씨가 최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08년 추계 한국정밀공학회 학술대회’에서 바이오 나노 관련 논문 3편을 발표했다. 조선대 기계공학과 김근형 교수의 ‘바이오나노유체 실험실’에서 수학 중인 이들은 신개념의 바이오시스

템을 이용해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LCD TV, 의료용 치료제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권위있는 SCI 저널에 논문 게재를 준비 중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설명회’



광주시는 1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환경부 김종천 상하수도정책관을 초청해 ‘저탄소 녹색성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KT, 조선이공대학에 실습장비 기증



KT 광주지사(지사장 최낙진)는 18일 조선이공대학 분부동에서 현장 학습용 실습장비 기증식을 갖고, 조선이공대학에 초고속인터넷 실습장비인 ‘메가패스 스페셜’ 등의 장비를 기증했다.

광주 소방본부 ‘구급대원 병원 실습 교육’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최정주)는 18일 조선대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119구급대원 병원 임상실습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21일까지 계속된다. /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
쌍둥이 할아버지 됐다

허정무(53) 축구대표팀 감독이 할아버지가 됐다. 허정무 감독은 18일(한국시간) ‘결전의 땅’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동하기 직전 카타르 도하국제공항에서 휴대전화로 갖 태어난 외손자 사진을 받았다. 지난 2006년 2월 결혼한 허감독의 딸방 재영씨는 이날 건강한 남자 쌍둥이를 출산했다.

광주은행 환자 위한 순회 음악회



광주은행은 18일 광주 기동병원 1층 쉼터에서 병원 환자들을 위한 ‘사랑나눔 순회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에는 ‘광주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광주 애육원 ‘꿈을 품은 메이리 합창단’의 협연으로 진행됐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특식
▲박재수(광주시 상수도본부 시설관리소장)씨 장남 동현군 서백석씨 장녀 수연양=22일(토) 낮 12시에 별무선웨딩컨벤션 3층 컨벤션홀.
▲양동진(광주 서부경찰서 교통과)·이진숙씨 차남 정열군 윤성규·박현자씨 차녀 지영양=22일(토) 낮 12시20분 경복궁웨딩컨벤션 1층 경복궁홀.
▲김종갑(광주 동부경찰서 수사과)·배영애씨 장남 선중군 김규성·최은자씨 장녀 선주양=22일(토) 낮 1시 상무지구 조선컨벤션웨딩홀 1층.
▲노경문·이향용씨 장남 희창(상례시오초 교사)군 이웅진(광주 동구청 건설과)·임규주씨 장녀 종남(계림초 교사)양=23일(일) 낮 12시40분 동명동 오페라하우스 3층 그랜드

동창·동문회
▲광주 북성중 19회 동창회(회장 손영환) 월례회=19일(수) 오후 7시 청림리화. 062-226-4447.
▲조대부고 20회 동창회(회장 임

성기)=20일(목) 오후 6시30분 현대예식장 건너편 화랑공회관. 062-223-7340.
▲광주여고 25회 동창회(회장 이명애)=21일(금) 오후 6시 베니스웨딩컨벤션 2층 로즈홀. 011-605-7814.
▲광주남중 21회(회장 김영휘) 월례회=21일(금) 오후 7시 주월동 국제호텔 위 흥여명가. 062-676-3883.
▲광주 북성중 22회 동창회(회장 김경남) 월례회=21일(금) 오후 7시 동현홀. 062-515-8808.
▲나주남중 7회 동창회(추진위원장 정병수) 창립총회=22일(토) 낮 12시30분 풍암동 영빈관. 011-618-4144.
▲재광 순천중·고 테니스회 월례대회=22일(토) 오후 3시 임동 일신방직코트. 016-652-8040(김대균).
▲광덕중 총동문회 창립총회=23일(일) 오전 10시30분 모교 1층 도

서관. 017-652-7090(김완상 교사)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062-65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
▲광주생명의 전화 무료 상담=24시 전화 상담 전국 공통 1588-9191, 광주 062-223-9191. 면접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모집
▲사랑의 배움학교 문해 한글과정 자원봉사 교사 및 수강생 모집=성인한글 기초·중급·고급반, 중급인 검정고시반, 한문반, 광산구 하남 성심병원 인근. 062-951-5397, 011-9456-6037.
▲운암골 족구회 회원 모집=일요일 오후 운암동 예술고. 011-609-2850(전일찬).
▲푸른복지 문화센터 무료 수강생 모집=오페라, 리본공연, 웃음치료, 칼라믹스, 종이접기, 댄스스포츠 등. 010-9940-1769.
▲(사)전남장애인재활협회 지회 모집=전남 시·군 지역(순천, 나주 제외), 복지분야 경험자로 덕망있는 자. 061-334-3636.
▲인우회 회원 모집=광주지역 전·의경 전역자들의 모임, 회장 019-277-0007.

부음
▲정현순씨 별세 달호(세무사)·귀호·황호(광주시청)·남호·봉호씨 부친상=발인 20일(목) 우산동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김봉두씨 별세 신·신철·훈철·철·선영씨 부친상 노정익씨 부부상=발인 20일(목) 우산동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송희수씨 별세 윤기·동기·춘화씨 부친상 이병녕씨 부부상=발인 20일(목) 학동 금호장례식장 301호. 062-227-4382.
▲이기섭씨 별세 동문(KBS 광주방송총국 엔지니어)·정훈(광주도

시철도공사)·상훈(주)육시)씨 부친상=발인 19일(수) 각화동 그린장례식장 12분향소. 062-250-4412.
▲황영숙씨 별세 김수일(전 KBS 광주방송총국 총무국장)씨 상배 용철·현석·상윤씨 모친상=발인 19일(수) 학동 금호장례식장 201호. 062-227-4381.
▲이광록씨 별세 승진·승현·승준·정희씨 부친상 장대용씨 부부상=발인 19일(수) 학동 금호장례식장 401호. 062-227-4383.
▲지남수씨 별세 김태봉·이연·태연·규주·점순·점덕씨 모친상 조해제·이성연씨 부부상=발인 19일(수) 각화동 그린장례식장 5분향소. 062-250-4405.

대한민국 프리드 선진국형 정치시스템 현대중앙일보 1688-3740